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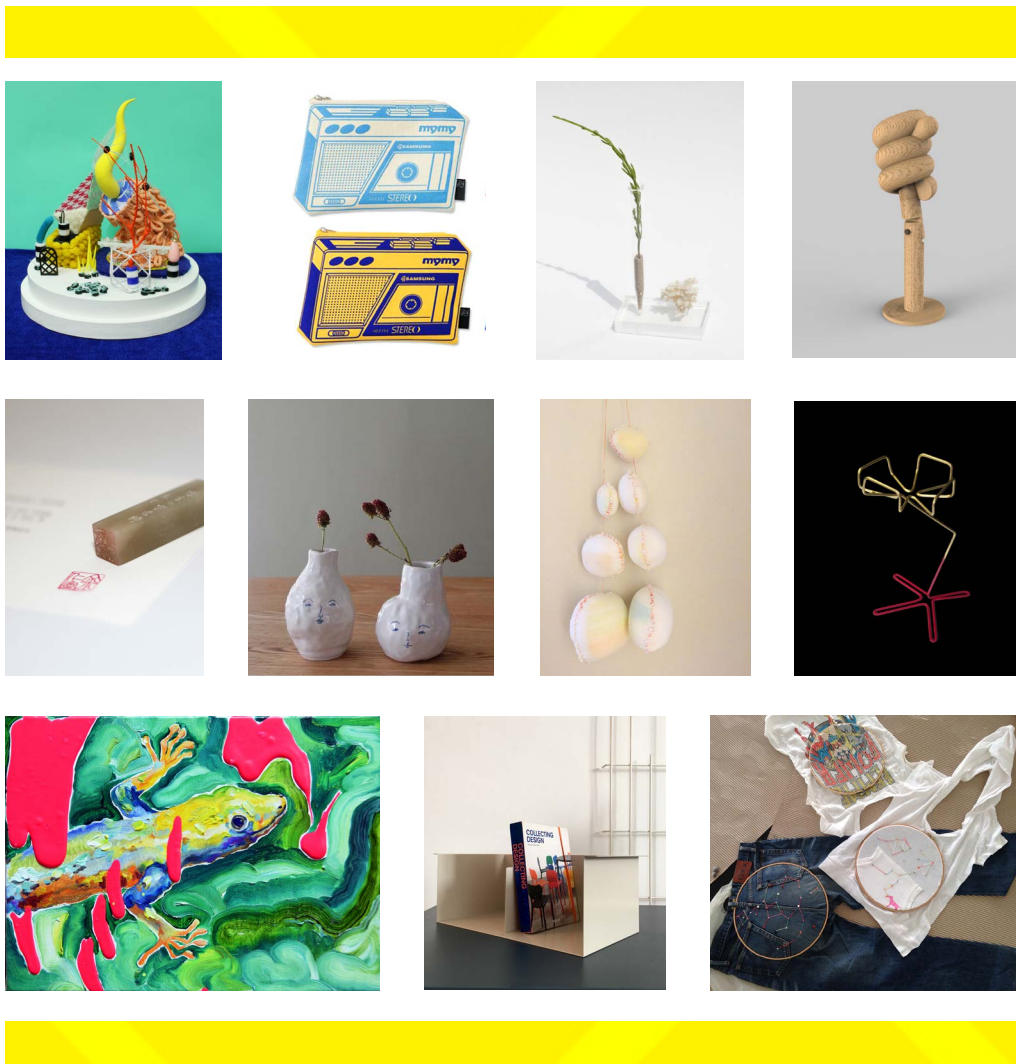
PREVIEW

선물이 예술이네요 Gift : Willing N Dealing
행사기간 | 2016. 9. 23 금 - 9. 30 금 (26일 월요일 휴무)

◎ 행사소개

이 행사는 'Space WILLING N DEALING'이라는 전시공간을 '선물가게'로 탈바꿈함으로써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한 공간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다. 작가들의 소규모 작업과 오브제로서 제작된 다양한 아이템을 일상의 선물가게에서 판매하는 '선물'로 설정하여 작품 구매를 어렵게만 느꼈던 대중들에게 보다 친숙하고 가볍게 다가갈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가족, 연인 등 소중한 사람을 위해 선물 구매라는 행위로서 작품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그들에게 예술을 선물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참여작가 | 고재욱, 구민정, 김시연, 노혜정, 박진우, 변상환, 쉐위댄스, 신광, 오유미, 윤가림, 이미경, 이세준, 이승찬, 이정형, 장종완, 장준호, 최승훈, 추미림, 크노프, 한성우, 한정림, 한황수, 혜적프레스, 윌링앤딜링 출판 외



김연용 개인전 <유령의 마음>
Kim Yeonyong solo exhibition <The Phantom Heart>

전시기간 | 2016. 10. 7. 금 - 10. 30. 일
오프닝 리셉션 | 2016. 10. 7. 금 18:00
클로징 토크 | 2016. 10. 30. 일 14:00



◎ 전시소개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는 10월 7일부터 30일까지 김연용 개인전 <유령의 마음>을 소개한다. 각각 두 명의 서로 다른 회화 작가의 작품 이미지를 하나로 묶어 독립된 세 편의 싱글 채널 비디오로 제시하는 전시로 분절된 회화적 사건들과 이미지의 잔해를 통해 우리의 의지, 인식, 해석, 의미가 작동하지 않는, 앞 너머의 세계와 예술적인 것과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미디어에 의해 재매개된 회화적 사건들의 환영적 이미지들로 구성된 이 전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 응대하는 예술실천의 잠재성을 실험한다.

◎ 인터뷰

Q. 이번 전시에서 김연용 작가는 원작 고유의 맥락과는 무관하게, 회화의 물질적 표면에서부터 출발하여, 이미지를 비물질적으로 재생산하고 그것을 나름의 방식으로 배치해 나아갑니다. 작업에 변주되어 등장하는 각각의 회화 이미지와 실제 회화 작업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A. 독립된 세 편의 싱글 채널 비디오로 제시하는 전시, '유령의 마음'은 분절된 회화적 사건들과 이미지의 환영을 통해 우리의 의지, 인식, 해석, 의미가 작동하지 않는, 앞 너머의 세계와 예술적인 것과의 근본적인 관계를 탐색합니다. 이는 한편에서, 회화 작품을 통해 질료가 이미지와 관계하며 발생하는 회화적 사건의 순수한 전개를 살펴보는 것이라면, 다른 한편에서, 이미지의 자율적인 전개 과정을 통해, 개념을 소진하고 언어적 진술을 좌절시키는 시각적 장치와 효과를 대면하는 것입니다. 각각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사유와 경험 '이전'에 존재하며, 인식과 감각 '바깥'에서 도래하는 새로운 조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회화 작품들과 이 전시는 모두 우발적인 것에 열린 체계로서, 우리가 결코 알지 못하는 세계를 응대하는 예술실천의 잠재성으로 서로 관계합니다.

Q. 이번에 전시하는 세 편의 영상 작업은 모두 각각 두 명의 서로 다른 회화 작가의 작품 이미지를 하나씩 묶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정 작가나 작품을 선택한 기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 가급적 관습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두 작가들, 두 작품을 연결 지어 보려고 했습니다. 의미 부여가 아닌, 의미 발생의 차원에서 '둘'을 전제하는 것은 그것이 자율적인 의미 발생의 최소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비교, 차이, 연결 등을 통해 이미지들은 새롭게 관계 맺게 됩니다. 그 외에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혹은, 매번 기준이 다르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 명의 작가나 하나의 작품이 저의 시선에 들어오고, 그것에 집중하며 이미지에 천착하다 보면, 또 다른 작가나 작품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러한 과정은 미리 기준을 정하고 작가들이나 작품들을 선별하는 것이 아닌, 리서치 과정에서 찾아지는 작업의 연결점들이 지속해서 열린 형태를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미지 간의 흥미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작업이 전개되는 새로운 조건들이 생겨납니다. 즉, 특정한 기준이나 조건에 맞춰 작업하기보다는, 유희적인 작업 과정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크고 작은 규칙들이 내적 정합성을 가지며 작업을 이끌어갑니다.

Q. 이 작업은 예술의 시각적 체험을 기반으로 얻어지는 미학적 감응을 찾는 데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작업에 대한 개념이나 이해의 수준 너머의 근원을 찾기 위해, 다시 물질 자체를 들여다본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여기에 재현적 장치인 영상이 개입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또 다른 단계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듯합니다. 전시는 특정한 형식을 통해 이러한 작업 과정이 오롯이 드러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A. 사실 이 작업은 회화에만 국한한 문제도 아니며, 이미지만을 고려하는 작업도 아닙니다. 물질적인 층위와 비물질적인 층위가 서로 교직,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이미지의 자율성에 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한 이미지의 자율성에 관한 생각은 때론 극장과 같은 독립적인 관람의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어떤 관람의 형식적 조건으로부터 작업이 자유롭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작업들은 극장 같은 곳에서 스크리닝의 방식을 취할 수도 있으며, 이번 전시처럼 3개의 영상이 한 공간에 동시에 보이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REVIEW with PHOTOS |

임윤경 개인전 <친숙한 집단, 낯선 개인>

Yoonkyung Lim solo exhibition <Familiar Group, Unfamiliar Individual>

2016. 8. 20 토 - 2016. 9. 11 일



서로의 이름 또는 호칭을 부르며 공을 서로에게 던지는 가족이라는 집단은 인간관계에 있어 어려움의 끝판왕일지도 모른다. 내 친구의 표현을 빌리자면 타인이라는 적당한 거리감이 불가능한 이 집단에서는 개개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보다 애증의 감정을 동시에 가지며 양적인 이해를 동반한다. 친숙하다고 느끼는 집단 속에서 낯섬의 마주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질적인 이해이자 어렵지만 꼭 해내야 할 숙제처럼 느껴졌다.

(글. 조근준 인턴)

- 1 | 아티스트 토크 (패널: 이미혜), 8월 27일
- 2 | 작품 <이름던지기>
- 3 | 작품 <Q&A>

제8회 PT & Critic 한황수 개인전 <내가 무조건 이기는 게임>

Han Hwangsu solo exhibition <Nobody Beats Me>

2016. 6. 11 토 - 2016. 7. 10 일

<내가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라는 제목은 다소 강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한황수 작가에 대해서, 작업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문장이다. 특정한 매뉴얼이나 제시되는 규칙을 거부하고 파스텔톤 색상 조합, 그래픽 툴의 합성 등의 작업들을 통해 본인을 드러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가장 반응이 좋았던 작업 <0.420112>의 일부인 랩에 쓰여진 가사는 작가인 자신이 하는 것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 1 | 오프닝 리셉션, 6월 11일
- 2 | 작품 <0.420112>
- 3 | PT&Critic 프로그램 (패널: 김도균, 이성휘, 이세준), 6월 19일



| Event |

2016
BLIND DATE
블라인드
데이트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남서울예술인마을과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이 함께 미술장터 <블라인드 데이트>를 개최합니다.

올해의 미술장터는 12월 첫 주에 있으며, 그 전에 3차례의 연계 행사로 조금씩 본 행사에 힘을 실어가려 합니다.

첫 연계 행사는 9월 24일 토요일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 작가 토크로 시작합니다. 더 많은 정보는 아래 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블라인드 데이트 www.facebook.com/2016blinddate/

남서울 예술인마을 www.facebook.com/openssav/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www.facebook.com/spacewillingndealing
www.willingndealing.com

정연두 & 고재욱
작가 토크
스튜디오
교신

<블라인드 데이트>
연계 행사 1-3 :

정연두 & 고재욱 작가 토크
스튜디오 교신

2012년, 서울 관악구 남현동의 한 건물에 미술가들이 모여면서 생성된 남서울예술인마을에 관한 토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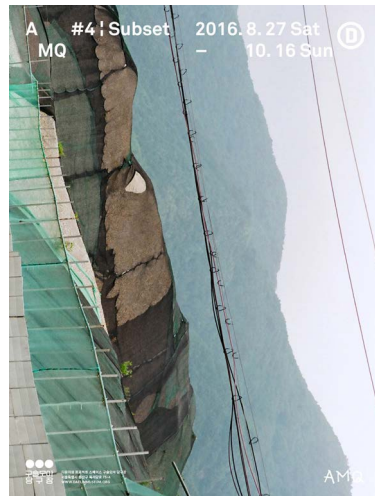
남서울예술인마을의 지나온 발자취와 국공립 레지던시와 예술인마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역 공동체와 함께 했던 활동 등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일시 : 2016년 9월 24일 토요일 오후 4시
장소 :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문의: 02-797-7893)
주최 : 남서울예술인마을,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 SHORT-CUT NEWS | 윌링앤딜링 전시 참여 작가들의 행방



천창환 작가는 서울 아트 스페이스에서 개인전 <어른거리는 좌표들>을 가졌습니다. 8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윤호 작가는 디뮤지엄 프로젝트 스페이스 구슬모아 당구장에서 열리는 <AMQ: #4-Subset>에 참여합니다. 기간은 8월 27일부터 10월 16일까지. ('AMQ'는 포토그래퍼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구민정, 윤가림 작가는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국립 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리는 '뮤지엄 페스티벌'에 참여합니다. 윤가림 작가는 5일간 베이킹 퍼포먼스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사전 접수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광 작가가 9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개최되는 2016 창원조각비엔날레에 참여합니다.



변상환 작가는 신길동에 위치한 스튜디오 MRGG에서 개인전 <서늘한 평화, 차분한 상륙>을 가졌습니다. 8월 11일부터 8월 25일까지.

심아빈 작가는 제8기 금천예술공장 입주작가로 선정되었습니다.

김다움 작가는 국립 현대미술관 과천관 30년 특별전 <달은, 차고, 이지러진다>에 참여합니다. 2016년 8월 18일부터 2017년 2월 12일까지.

김다움, 장종완 작가는 간송미술관에서 열리는 <간송 OLD & NEW : 法古創新-현대작가, 간송을 기린다>에 참여합니다. 장소는 동대문 DDP. 기간은 9월 10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세준 작가는 케이크 갤러리에서 개인전 <포락지 Submerged Land>를 가집니다. 양주 777갤러리에서는 전시 <늪과 숲 Swamps and forests>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각각 9월 6일, 9월 10일부터 9월 25일까지.

한황수 작가는 대안공간 눈의 '자기만의 방'에서 개인전 <쌓인 팔로워들>을 가집니다.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W&D NEWS |

김인선 디렉터는 전 윌링앤딜링 직원 이신애와 파리에서 재회하였다. 타지 생활을 하며 파리에서 생일을 맞이한 이신애와 함께 긴 여행을 위한 체력 보강을 핑계로 함께 맛집을 섭렵하고 다녔다는 소식이 개인 페북을 통해 전해졌다.



이경아 코디네이터는 9월에는 보러 가야 할 전시가 많다는 핑계를 대며 짧은 가을을 만끽하기 위해 밖으로 돌아다닐 궁리만 하고 있다.

조근준 인턴은 키가 크는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 친구의 "응, 꿈이야~" 대사에 친구고 뭐고 때릴 뻔 했다고 한다. 키는 자라지 않았다.

오시는길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77-20번지 2층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발행: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편집인: 이경아, 조근준, 한황수
감수: 김인선
발행일: 2016년 9월 23일